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8. 6 | 통권 제27호(2012-15) |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요약]

-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 증가해 침체된 경기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였음.
- 이와 같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자영업자 증가에 힘입음. 자영업자는 201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61천 명 증가해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 임금근로자는 침체된 경기를 반영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2011년 2분기까지는 전년동기대비 40만 명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해 2012년 2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281천 명, 2012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12천 명까지 증가폭이 감소했음.
- 2012년 상반기 2%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호조세로 2012년 2사분기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0.732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함.
- 수출증가율 둔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부진은 고용부진으로 이어져 2011년 8월 이후 제조업 고용감소세는 지속된 반면, 전통적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폭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516천 명 증가함.
- 2012년 하반기 취업자는 상반기 저성장에 따른 경기후행적 반응과 2011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전년동기대비 3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381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가 201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동향분석팀(2012),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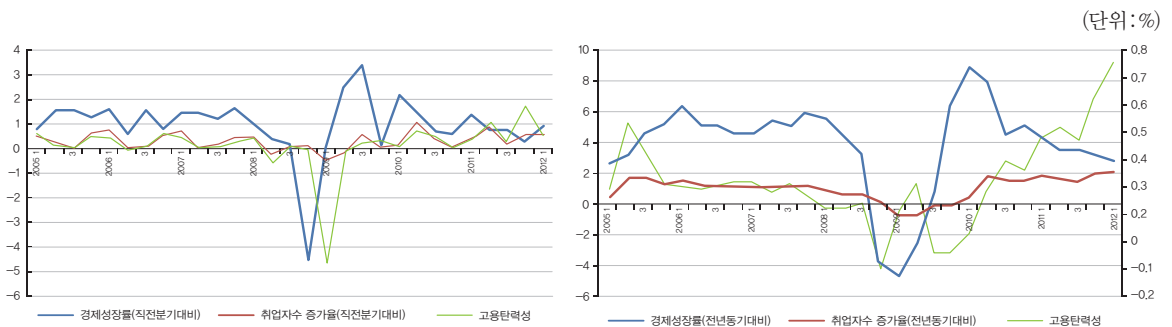
2012년 상반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호조세 지속

-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 증가해 침체된 경기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였음. 이로 인해 고용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과거의 흐름과는 다른 이례적인 큰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흐름은 2011년부터 지속됨(그림 1).
-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12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는 503천 명 증가했는데, 동 기간 취업자 수는 449천 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53천 명 감소해 경제활동인구는 약 397천 명 증가하였음.
-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약 76%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셈인데,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는 10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경활 증가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낮은 비경활 증가율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이 본격화된

2010년 1분기부터 지속된 현상임.

- 2012년 상반기 고용성과는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주로 50대가 주도(293천 명 증가)하였으며,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감소함.
-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을 보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기보다 상승함.
 - 25~29세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기보다도 1.4%포인트 높은 69.8%로 상승하였음.
 - 4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지난해는 물론이고 2007년 동기보다 높은데, 특히 50대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 상반기의 고용성장은 자영업이 이끌었음.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53천 명 증가를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했음.

[그림 1] GDP 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 전분기대비(좌측), 전년동기대비(우측)



주 : 고용탄력성=취업자 수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계산.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추이(각 연도 상반기)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5~24세	1,547	1,452	1,343	1,365	1,380	1,466	86	26.0	24.5	22.6	22.9	23.0	24.1
25~29세	2,674	2,672	2,626	2,569	2,492	2,403	-89	68.4	68.4	67.8	68.3	69.0	69.8
30~39세	6,021	6,034	5,848	5,820	5,797	5,724	-73	72.6	73.1	71.3	71.7	72.1	72.2
40~49세	6,462	6,515	6,506	6,520	6,588	6,605	18	78.2	78.2	77.5	77.5	78.2	78.3
50~59세	4,001	4,228	4,402	4,699	4,988	5,281	293	68.8	70.1	69.9	70.5	71.1	72.0
60세 이상	2,565	2,560	2,596	2,631	2,771	2,985	214	37.6	36.4	35.8	34.9	35.4	36.4
전 체	23,270	23,461	23,321	23,603	24,016	24,465	449	59.6	59.4	58.4	58.3	58.7	5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연령별 자영업자 수, 연령분포, 연령 내 비중(각 연도 상반기)

(단위: 천 명, %)

	자영업자 수					연령 분포					연령 내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15~24세	65	60	68	53	51	6.2	5.8	5.8	5.8	6.0	4.4	4.4	5.0	3.8	3.5
25~29세	169	158	140	130	145	11.4	11.3	10.9	10.4	9.8	6.3	6.0	5.5	5.2	6.0
30~39세	1,037	923	910	820	808	25.7	25.1	24.7	24.1	23.4	17.2	15.8	15.6	14.1	14.1
40~49세	1,903	1,777	1,679	1,613	1,601	27.8	27.9	27.6	27.4	27.0	29.2	27.3	25.8	24.5	24.2
50~59세	1,508	1,552	1,603	1,657	1,746	18.0	18.9	19.9	20.8	21.6	35.7	35.3	34.1	33.2	33.1
60세 이상	1,264	1,235	1,204	1,255	1,337	10.9	11.1	11.2	11.5	12.2	49.4	47.6	45.8	45.3	44.8
전 체	5,944	5,703	5,605	5,528	5,689	100.0	100.0	100.0	100.0	100.0	25.3	24.5	23.7	23.0	2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임금근로자는 2011년 2분기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40만 명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해 2012년 2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281천 명, 2012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12천 명 증가 수준 까지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이는 침체된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증감을 보면,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12년 상반기에 50대 89천 명, 60세 이상 82천 명, 25~29세 15천 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연령대에서도 감소의 정도는 다른 해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각 연령대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5~29세에서는 증가하고 30대에서는 전년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최근의 자영업 증가가 꾸준히 지속되어 온 고령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추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젊은 연령대에서도 자영업이 증가했거나(20대 후반), 인구감소 효과를 제거하면 자영업 규모가 유지(30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함. 40대에서도 자영업 비중 감소폭이 다른 해에 비교해 매우 작아 자영업 증가가 고령 취업자에 한정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풀이됨.

- 취업자 수, 고용률 모두 크게 증가한 50세 이상 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신규채용의 지속 및 증가도 50대 임금근로자 증가에서 중요하지만, 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의 증가도 50대 임금근로자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신규 채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6개월 이하 근속자는 50대의 경우 2011년 상반기 805천 명에서 2012년 상반기 820천 명으로 약 15천 명 증가한 반면, 10년을 초과한 사람은 854천 명에서 928천 명으로 약 74천 명 증가함.

- 60세 이상은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45천 명 증가해 50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표에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60~64세는 50대와 동일한 패턴이고, 65세 이상에서 신규 채용자가 증가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음.

최근 고용호조세는 서비스업에서 견인

-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2011년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84천 명 감소함(2011년 상반기 170천 명 증가).

- 이와 같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부진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부진과 직결되어 있음.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1사분기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부문 고용탄력성은 2012년 1사분기, 2사분기 각각 -0.606, -0.374로 나타나 최근 고용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력은 2011년 3사분기부터 하락하고 있음.

〈표 3〉 근속기간별 고령 임금근로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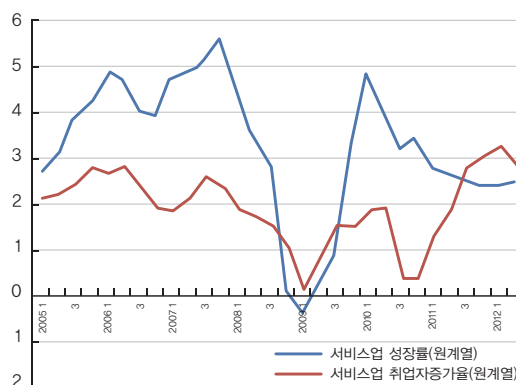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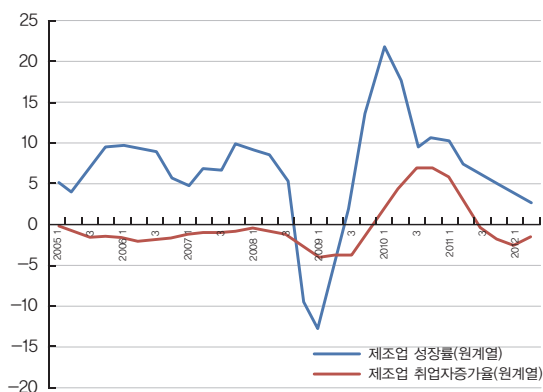
(단위:천 명)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전 체
50대	2009	727	227	247	329	254	702	2,486
	2010	796	228	285	390	266	780	2,745
	2011	805	245	300	441	318	854	2,963
	2012	820	261	322	488	344	928	3,162
	2012-2011 증감	14	16	22	47	25	74	198
60세 이상	2009	469	119	129	151	116	86	1,068
	2010	546	106	125	172	104	107	1,160
	2011	546	129	135	180	111	140	1,241
	2012	591	131	158	202	115	163	1,359
	2012-2011 증감	45	2	23	22	5	23	1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그림 2〉 제조업·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원계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2년 상반기 임금근로자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변동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

- 제조업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속하는 상용직 일자리의 대부분이 20~30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함.
- 제조업 임금근로자로의 신규채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던 1년 이상 근속자들의 규모가 2011년 상반기와 큰 차이를 보임(2011년 158천 명 증가→2012년 상반기 2천 명 증가).

-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에서의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상반기 저성장 기조 속에서 예상밖의 고용호조세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서 견인하고 있음.

- 2012년 상반기 서비스업 고용은 전체의

70.0%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무려 0.9%p나 상승하였고,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탄력성은 2012년 1사분기, 2사분기 각각 1.371, 1.118로 나타남.

-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세는 50~60세 중고령층이 주도하고 있으며(전년동기대비 417천 명 증가), 이들 연령층에서의 내수산업 중심의 활발한 창업 및 기존 나홀로·영세 사업체의 유지, 임시직 채용 증가에 기인함.

- 최근 자영업의 증가세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홀로 사업체나 영세사업체 창업과 더불어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2012년 상반기 동안 서비스업 부문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자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년동기대비 16천 명 증가한 점임. 그러나 대부분 내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제조업·서비스업 특성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6)	2008 (1~6)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전 체		282	145	-72	323	415	167	301	-140	283	412	449
제조업		-42	-52	-126	191	63	-48	-24	-157	117	170	-84
연령	20세 이하	-3	-3	-3	7	1	2	-8	-4	4	3	1
	20~29세	-42	-71	-47	24	-19	-44	-77	-54	1	17	-42
	30~39세	-33	-27	-40	12	-0	-43	-10	-47	-3	27	-70
	40~49세	5	-20	-42	38	20	11	-15	-44	25	42	-27
	50~59세	23	57	27	92	46	15	72	11	84	63	44
	60세 이상	6	13	-21	19	15	11	15	-19	6	18	11
지위	임금근로자	-23	-49	-96	162	69	-34	-39	-102	72	175	-56
	상용직	60	9	10	184	110	58	2	28	112	205	11
	임시직	-71	-49	-73	4	-37	-73	-38	-101	-7	-31	-27
	일용직	-13	-9	-33	-26	-4	-19	-4	-29	-34	1	-40
	비임금근로자	-19	-3	-30	29	-6	-14	16	-55	45	-5	-2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	-13	-9	11	2	-0	-3	-29	20	4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12	-18	-4	-3	-7	22	-19	-0	-8	-7
	무급가족종사자	-10	-2	-3	22	-5	-7	-3	-7	25	-1	-17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86	278	334	96	318	279	516
연령	20세 이하	4	-15	-10	20	22	-9	-2	-28	20	27	0
	20~29세	9	-26	-55	-79	-21	14	-10	-56	-52	-74	18
	30~39세	-58	26	-97	21	1	-84	57	-122	33	-2	28
	40~49세	65	127	74	23	56	31	122	87	32	52	53
	50~59세	202	131	157	164	214	175	148	143	201	178	240
	60세 이상	134	16	109	51	113	151	19	70	84	98	177
지위	임금근로자	360	281	390	371	379	308	348	249	490	325	398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234	372	259	596	420	374
	임시직	94	-25	116	-46	-57	151	-53	54	8	-75	105
	일용직	-27	1	-87	-85	-39	-77	30	-65	-114	-20	-81
	비임금근로자	-4	-22	-212	-171	7	-31	-14	-153	-171	-46	1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0	4	9	-33	6	-53	10	4	-14	-27	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2	-31	-182	-78	2	32	-19	-136	-75	-40	45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0	-10	-5	-21	-83	21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 하반기 취업자 수, 312천 명 증가할 듯(연간 381천 명)

- 2012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사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2.4%, 전기대비 0.4%를 기록하여 1사분기 2.8%에 이어 2%대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2012년 7월)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1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0%로 하향수정함(하반기 3.9%→3.2%).

- 그러나 이러한 2%의 저성장 속에서 고용은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2사분기 현재 0.732로 이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더불어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내수 부문의 부진 등으로 2%대의 저성장을 기록

〈표 5〉 고용탄력성 추이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2008	0.267	-0.445	0.588	-0.607	3.511	
2009	-0.943	2.091	0.973	2.849	2.347	
2010	0.217	0.341	0.315	-0.172	2.294	
2011	0.479	0.218	0.880	0.092	2.986	
2012	0.529					
2008 1/4	0.167	-0.050	0.426	-0.170	2.925	
2/4	0.168	-0.102	0.505	-0.237	3.178	
3/4	0.184	-0.245	0.558	-0.247	3.101	
4/4	-0.069	0.273	6.860	0.258	5.469	
2009 1/4	0.152	0.299	-0.694	0.567	2.727	
2/4	0.271	0.526	2.667	0.758	2.936	
3/4	-0.004	-1.974	1.585	1.578	2.346	
4/4	-0.003	-0.093	0.469	-0.516	1.709	
2010 1/4	0.067	0.071	0.399	-0.132	1.756	
2/4	0.242	0.254	0.486	-0.191	1.663	
3/4	0.345	0.726	0.159	-0.187	2.680	
4/4	0.310	0.634	0.136	-0.179	4.137	
2011 1/4	0.433	0.582	0.493	-0.218	3.330	
2/4	0.480	0.374	0.734	-0.013	4.242	
3/4	0.420	-0.047	1.097	0.244	2.722	
4/4	0.596	-0.337	1.248	0.474	1.945	
2012 1/4	0.709	-0.606	1.371	0.725	0.960	
2/4	0.732	-0.592	1.118	1.287	1.013	

주 : 2012년 연간 고용탄력성은 〈표 6〉의 하반기 고용전망을 반영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6〉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천 명)

	2011			2012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8	3.4	3.8	2.6	3.2	3.0
생산가능인구	40,938	41,166	41,052	41,441	41,656	41,548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36	25,099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1	61.2	61.4	61.3
취업자	24,016	24,473	24,244	24,465	24,785	24,625
(증가율)	1.7	1.7	1.7	1.9	1.3	1.6
(증감수)	412	418	415	449	312	381
실업자	947	763	855	894	810	852
실업률	3.8	3.0	3.4	3.5	3.2	3.3
고용률	58.7	59.4	59.1	59.0	59.5	59.3
비경제활동인구	15,976	15,931	15,953	16,082	16,061	16,071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3〉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했으며, 하반기에도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중국 경제성장률의 정체 등 대내외 여건의 불안정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하반기 고용사정은 상반기의 저성장
에 따른 경기후행적 반응과 2011년 하반기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하반기에도 50~60세 이상 중고령층의 인
구증가로 인한 고용증가와 더불어 금리인

하로 인한 재무여건의 개선, 정부의 창업지
원정책의 영향으로 자영업 증가세가 지속된
다면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12천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381천 명 증가하
여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는 2011년에 비
해 개선될 것으로 보임.

성재민·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ongjm@kli.re.kr / 02-3775-5580

seesaram@kli.re.kr / 02-3775-5579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를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